

大學 教材와 著作權法

孫 承 堯
(亞洲大 工大 學長)

제작년 12월 著作權法이 國會를 通過했다는 報導는 先進社會로의 발돋움에 대한 긍지보다는 쓸쓸한 餘韻이 뒤따르는 것이었다. 出版物의 著作은 마땅히 保護되고 尊重되어야 함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法의 制定은 우리의 當爲의 認識보다는 '85년 美國이 通商法 301條를 發動함으로써 '86년 受動的으로 合議할 수밖에 없었던 知的 所有權에 관한 合議事項에 의해 일정이 당겨지고, 이 法의 發效와 더불어 豫見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충분한 對策없이 이루어진 데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만년 貿易 赤字에 허덕이던 우리나라 經濟가 黑字로 돌아선 것이 '86년도로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수십 년 아니 수백 년간 世界 經濟를 주름잡아 왔던 美國이나 歐洲 諸國들이 한국 商品의 輸入 規制와 貿易 報復을 서슴지 않으며 不公正 去來라고 일거에 罵倒하고 있는 각박하고 긴박한 현실에서 晚時之歎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時代의 흐름과 國家의 發展에 대한 새로운 姿勢의 정비가 시급함을 통감하게 된다.

특히 우리의 關心을 集中시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海賊版 大學 教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韓·美間 知的 所有權에 대한 實務 協議에서 가장 異見과 마찰을 보였던 것이 이미 보유한 海賊版 教材로서, 美國側은 韓國 出版業界가 보유하고 있는 200여만 권의 수량을 전부 수거하여 燒却 處理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한다. 美國 사람들에게 옛 中國 故事의 焚書坑儒가 中國 歷史에 얼마나 큰 害毒을 끼쳤는지 力說하고 反省을 촉구할 수는 없지만, 素朴한 우리 意識으로는 한두 권도 아닌 200만 권이나 되는 책을 소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天人共怒할 일이라고 아연할 수밖에 없다. 이 圖書들은 1986년에 合議한 事項으로서 당시보다 10년을 소급하여 1977년 7월 이후 美國에서 刊行된 책들의 複寫本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그 대부분이 理·工·醫·藥學 등 自然系 圖書라는 점에서 우리는 問題의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낀다고 할 것이다. 産業 發展과 輸出 主導에 焦點을 두어온 그간의 經濟開發政策에 힘입어 自然系 高等教育은 1960년대 초기부터 教育 人口의 急激한 膨脹을 가져 왔고, 이러한 量의 增加가 상대적으로 教育의 質을 低落시켜 '70년대 이후 工學教育의 不實이 누누이 指摘되어 왔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물론 IBRD 등 外國 借款에 의한 實驗實習 機資材 확보, 理工系 教授 해외 연수, 大學評價를 통한 정보 교환

과 改革 意志 및 認識 提高, 實驗大學制度의 정착, 國·公立大 시설 개선 등 教育의 內實化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시행으로 상당한 成果를 본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公開의 으로 내세울 만큼 떳떳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영세한 출판업자들이 教科書나 參考書類들을 海賊版이라는 汚名을 무릅쓰고, 저렴하게 適期에 공급해 줌으로써 理工系의 專攻教育이나 基礎分野教育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50년대나 '60년대에 理工系 大學을 다닌 사람으로서 教科書를 제대로 갖추고서 공부할 수 있었던 學生이 얼마나 되었으며, '70년대 후반 이후 教科書를 확보할 수 없어서 공부에 크게 지장을 받았던 大學生이 얼마나 되었을지 정확한 수자 파악은 어렵겠지만 참으로 今昔之感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密月도 이제 冷嚴한 현실 앞에 終焉을 告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岐路에 서 있는 것이다.

大學의 自律化·正常化의 일환으로 理工系 및 醫學系 教育費 現實化가 加速化되어 1988학년도 新入生 納入金을 보면 工學系 學生의 납입금이 人文·社會系보다 연간 20여만 원이나 높다. 이런 隔差는 더욱 深化될 것이며, 앞으로 3~4년 후에는 40~5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날 것으로 豫想되어 理工學系 學生들의 直接教育費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理工系 學生當 연간 10~20여 원이나 필요한 教科書와 參考書의 購得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게 추가될 때, 우리는 所期했던 教育의 正常化·現實化에 逆機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4년제 大學의 自然系 學生數는 60여만 명으로 推算되고 있으며 교과서류 구입에 1인당 연간 追加負擔額을 5만 원으로 보더라도 종합 규모는 300억 원이나 된다. 일반인과 특히 水準 높은 圖書를 필요로 하는 大學院課程의 學生들을 함께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海賊版에 의한 우리의 教育 狀況이 한편 學論하기에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막중하게 의존해 온 엄연한 사실은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외면하기에는 우리의 教育이 당면하는 어려움이 너무도 심각하게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이다.

海賊版 圖書와 관련하여 問題의 核心이 되고 있는 理工系 教科書는 하루 이틀에 妙案이 생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나 해당 분야의 教授나 專門家, 出版界, 大學, 각종 學術團體나 公共財團 그리고 政府를 망라한 汎國家的 次元의 共同 解決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事項들을 例擧할 수 있다.

첫째, 教科書 問題가 어느 정도 正常化될 때까지 教科書 著述을 위한 開發支援金, 發刊費 補助, 優秀 著述에 대한 業績 認定과 Monogram 賦與, 印稅에 대한 稅金 減免 등 政策的 勸獎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大學出版部의 活性化를 들 수 있다. 근래 컴퓨터의 普及 活用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圖形的 처리를 포함한 原稿 作成, 校正, 編輯 등의 機能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레이저 프린터 등으로 저렴하면서도 良質의 印刷用 原本을 만들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大學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出版 機能에 약간의 施設 投資를 추가함으로써 大學內에서 短期間 內에 印刷用 原本 製作이 가능해질 수 있다. 出版業界나 外部的 與件 改善에만 미루지 말고 大學 스스로의 自救策 마련에도 과감한 意志가 필요하다. 美國의 MIT Press나 영국의 Oxford Press 등이 專門良書 出版의 世界的 名聲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大

學出版部도 이제 이러한 位置를 指向할 절호의 時機에 와 있다 할 것이다.

세째, 현재까지 零細性을 탈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海賊版 大學 敎材를 公 급해 왔던 群小 出版業者들이 어느 程度의 自 生的 競爭 能力을 갖추도록 大學 敎材 出版業에 對한 資 格· 施設 基準을 強 化하면서 그들의 統 合을 돕고 限 時的으로라도 施設費 용자와 運 營上의 稅 制 혜 택을 주어 빠른 시일 안에 一 定 수준으로 自 立 成 長할 수 있도록 하는 浮 揚策을 마 련해 주어야 한다.

네째, 政府나 國·公立 研究機關 등 出版物을 간행하는 부서에서도 大學 敎材 수준 이상 의 專門圖書의 저술·제작을 보다 活性化하고 一般 需要를 감안하여 非營利 次元에서 그 보급을 확 善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섯째, 理工系 專門圖書 翻譯에 대한 關 心을 週 期的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다. 흔히들 日本에서는 原 書 出版과 거의 같은 時期에 日語 翻譯版이 나온다고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受 賞作品이라든가 당장에 收益性이 눈에 보이는 類의 商品 價 值가 있는 책들은 여러 出版社가 競 爭的으로 빨리 出版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事實 理工系 專門圖書들도 大 學生을 포 함한 底 邊의 人 口가 相 당히 확 대되어 있어서 웬 만큼 充 實한 內 容과 時 宜性만 갖 추 어 지 면 普 及할 수 있는 市 場도 어느 程度 확 보될 수 있다고 思 考된다. 理工系 敎 科書를 포 함한 專 門 分 野 도 서도 容 易히 翻 譯할 수 있도록 專 門家 集 團을 活 用할 수 있는 Pool System 形 成, 適 切한 弘 報와 普 及 體 系 確 立 等에 出 版業界나 政 策部署에서 新 로운 認 識과 더 불 어 發 展的 努 力을 기 울일 때 우리 의 海 賊版 敎 科書 問題도 서서히 泯 滅될 수 있으리라 本 다. 이제 新 學 期도 지나고 해서 200 萬 圓을 懸 念했었던 在 庫圖書 問題는 앞 으로 큰 異 議가 될 수 없 겠 지만, 2 學 기부터 새로이 登 場될 것으로 思 考되는 人 世 支 拂에 對한 價 格 인 상 이나 出 版權 問題 等에 大 學人과 出 版人 그리고 政府가 一 起로 對 策을 講 求해 나가야 할 것이다. *